완도전복 세계가 인정…국제인증 세계 최다 보유

어가 14곳 친환경 수산물 ASC 취득 5개국 30어가 중 완도가 26곳 달해 품질 우수성 입증 …수출 활성화 기대

완도지역 전복양식어 가14곳이최 근친환경수 산물 국제인 증인ASC를 취득했다.지 난 2018년 아시아 최초



로 ASC 인증을 획득한 완도 전복어가는 총 26곳 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ASC 보유국이 됐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지속가능한 수산양 식영어조합법인' (14개 전복 양식어가)이 ASC 인 증을 새로 취득했다. 지난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완도 전복어가가 ASC를 취득한 데 이은 성과로 완 도지역 전복양식어가 26곳이 ASC 인증을 보유하

전복 양식어가에 대한 ASC 인증은 한국을 비롯 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총 5개국 30어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완도지역 전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

지속가능한 수산물 양식생산업체임을 보증하 는 국제인증이다. 지난 2010년 세계자연기금 (WWF)과 수산양식의 국제표준을 제정·관리하는 네덜란드 친환경무역단체(IDH)에 의해 ASC(세계 양식책임관리회)가 설립됐다. 목적은 해양 지원의 남획과 무분별한 수산양식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 아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ASC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료, 수질, 생태계, 항생제 사 용 등 환경 관리에서부터 노동자의 권리 안전까지 보 증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고비용, 장기간 심사 등으로 인해 취득이 쉽지 않다.

복어가 26곳이 ASC 인증을 취득해 전 세계 전복 ASC 인증의 86.7%를 차지하게 됐다.

완도군과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영어조합법인은 ASC 인증 취득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인증에 필요한 양식 환경 관리, 사회 인식 전환 교 육, 퇴적물 조사 등 총력을 기울였다.

완도군은 세계 최다 전복 ASC 인증을 획득함으 로써 완도산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돼 전복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완도군은 어가와 유통업체,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ASC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완도지역 지속가능한수산양식영어조합법인 소속 14개 전복 양식어가가 최근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인 ASC를 새로 취득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제3기 전복 ASC 인증 희망어가를 모 집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또 내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대비한 해조 류 국제 인증(ASC-MSC)도 추진 중이다. 생산 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 완도군 친환경 수산물 시 스템 확립을 목표로 양식장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업체의 국제 인증(ASC-CoC) 추진도 독려하고

공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 는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ASC 인증을 통해 입증됐다"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열리는 내 년까지 전복·광어·해조류도 ASC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식동과 해식애

천혜의 지질박물관 홍도서 비경 즐기고 지질 관찰

습곡·층리·해식동 등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 2대 전망대에 설치

신안 홍도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장 비가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 170호로 지정된 홍도의 천혜 비경과 다양한 지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에 고성능 관찰장 비(망원경) 2대를 설치했다.

홍도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퇴적암인 사암과 변성암인 규암으로 구성돼 있다.

사암은 바위가 풍화되어 만들어진 작은 모래 알갱 이들이 모여 퇴적형성된 퇴적암이고, 규암은 사암이 오랜기간 열과 압력을 받아 형성된 변성암으로 매우 단단하며 수평으로 책을 쌓아 올린 듯한 형태의 층 리구조와 습곡구조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해안은 급한 경사의 해식절벽과 약한 암석층이 떨어져 나가 형성된 해식동굴도 다수 존재한다. 수 평·수직 절리가 풍화를 받아 절벽에서 떨어져 만들 어진 애추(너덜겅)도 관찰된다.

해질녘 섬 전체가 붉게 보인다고 해 이름 붙여진 홍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꼽힌다. 해상 유람선을 타고 남문바위, 탑섬 등 기 암괴석 33경을 볼 수 있다. 여름과 가을에는 섬 원 추리 축제, 열기(불볼락)축제가 열려 연간 1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대표 관광지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 아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렀던 지층들이 망원경 을 통해 가까이 볼 수 있게 됐다.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담당은 "천혜의 자연경 관을 가진 홍도는 섬 자체가 천연 지질박물관"이라 며 "앞으로 관광과 더불어 지질학적 가치를 홍보하 고 교육할 수 있는 지형·지질 전문해설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층리

해남군, 대흥사권역에 '테마가 있는 길 정원' 만든다

2023년까지 120억원 투입 조성

해남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흥사 권역에 전국 최초로 '테마가 있는 길 정원'을 조성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쉼과 재미가 있는 테마정 원(휴-펀 밸리)'을 조성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1단계로 대흥사로 진입하는 1.5km 구간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산사길(황톳길)로 복원 하고 우회도로(차길)를 개설한다. 새로 조성된 산 사길은 '차 없는 거리' 로, 방문객들이 숲과 계곡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대흥사 숲길의 자연환경 을 최대한 살려 건강한 걷기길로 만들어진다.

2단계로는 개울 정원을 포함해 대흥사 계곡 주변 으로 다양한 주제의 정원을 조성하고, 3단계는 부 대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게 된다.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휴(休)의 공간인 동백숲 길과 단풍나무 숲, 개울가를 중심으로 향기 산책로 와 나비원, 개울산책로 등이 조성되며, 가족단위 놀이·체험 공간과 상가 일원에 대한 가든 스테이션 등 기반도 확충한다.

길 정원 사업은 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정원

대표전화 062) 970-6000



두륜산 휴펀밸리 조성사업

사전 심의를 마치고,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 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륜산 대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 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서깊은 천 년고찰이다.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좌불을 비롯해 천년수, 일지암, 남미륵암 등 갖가지 전설 을 간직한 유적과 두륜산케이블카, 두륜 미로파크,

웰빙 음식촌 등이 밀집한 해남 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다.

특히 대흥사까지 오르는 십 리숲길은 각양각색의 난대림 이 터널을 이루고, 곡과 물이 어우러진 있어 '구곡구유'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이번 두륜산 권역 길 정원 사 업이 완료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다녀갈 것 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

해남군은 대흥사 권역이 어 느곳보다 우수한 환경자원 등 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적

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해남군 관광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흥사 권역 길 정원 조성사 업을 통해 남해안권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지 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차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바이러스 없는 고구마 조직배양묘

영암군이 바이러스 없는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영암군 30일까지 분양 접수

영암군은 지역 특화작목인 고구마의 안정적 생 산과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30일까 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이러스 무병묘 분양 접수 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영암군은 바이러스가 없는 생장점을 배양해 고 구마 무병묘를 만들어 9~11월(추기), 이듬해 1~3 월(춘기) 8만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조직배양묘는 일반 고구마묘에 비해 바이러스 재감염률이 5% 이하로 낮고, 수량 및 상품화율은 20% 이상 높아 고구마 재배농가 선호도가 높아지 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3년에 한 번씩 씨고구마를 조직 배양묘로 대체해 고품질 영암고구마의 위상을 높 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씨고구마를 2~3 년 사용하다보니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산량은 떨 어지고 상품성 낮아지고 있다"며 "조직배양묘 공급 은 농가의 무병 씨고구마 갱신에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